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69>
(修習止觀坐禪法要)

제9장 치병(治病) ③

지관은 병을 치료하는 가장 훌륭한 약

復次 有三種得病因緣不同 一者四大五藏 增損得病如前說 二者鬼神所作得病 三者業 報得病 如是等病 初得即治 甚易得差 若經 久則病成 身羸病結 治之難愈

다음으로 세 종류의 병을 얻는 인연이 동일 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밝히겠다.

첫 번째 지수화풍 사대와 오장이 증가하고 감소하여 균형이 맞지 않아서 얻은 병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두 번째는 귀신의 장난으로 얻은 병이고, 세 번째는 전생의 업보로 얻은 병이다.

이 같은 병은 처음 얻었을 때 바로 치료하면 쉽게 고칠 수 있으나 시일이 오래 경과되면 몸이 수척해지고 굳어져 치료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로 귀신 병에 대해 밝혀보기로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대 오장에서 일어난 병은 귀신병은 아니고, 귀신병은 사대 오장병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귀신병이 없다고 하면 무당 무리들은 한결같이 귀신병으로 치료를 하여 낫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또 사대 오장병이 없다고 하면 의사들은 한결같이 탕약으로 치료하여 낫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이 두 경우를 살펴보면 귀신병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옛날에 사리불존자가 기사굴산에서 금강삼매에 들어있었다. 그 때에 두 귀신이 허공을 통과하였는데, 한 귀신의 이름은 가라이고 또 한 귀신의 이름은 우바기라였다. 사리불이 결가부좌하고 선정삼매에 들어있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는 가라귀신이 상대방 귀신에게 말하였다.

“나는 지금 내 주먹의 힘으로 사문의 머리를 후려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우바기라귀신이 가라귀신에게 말하였다.

“사문의 머리를 후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사문은 세존의 제자 가운데서 총명한 지혜가 가장 으뜸이기 때문이다.”

가라귀신은 거듭 말하였다.

“나는 사문의 머리를 후려칠 수 있다.”

선한 우바기라 귀신은 말하였다. “그대가 내 말을 듣지 않으려면 여기에 머물러라. 나는 너를 버리고 떠나겠다.”

악한 귀신인 가라는 대꾸하였다.

“그대는 사문을 두려워하는가.”

작한 귀신은 말하였다.

“나는 실로 그를 두려워한다. 그대가 사문의 머리를 후려친다면 대지가 두 쪽으로 나뉘고 거센 비바람이 일어나 천지가 진동을 하면 모든 하늘나라에서도 놀라고 두려워하여 사천왕까지도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처소마저 불안해진다.”

악귀가 말을 듣지 않자 선한 귀신은 그곳을 떠났다.

이 인연은 ‘증일아함경’에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귀신이 장난을 하면 역시 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업보로 일어난 병을 설명해본다면 오로지 전생의 죄업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고, 금생에 계율을 파괴하여 이로 인해 전생의 죄업이 발동하여 병이 생기기도 한다.

업력으로 이뤄진 병은 오근을 통해서 범한 죄업을 알 수 있다. 가령 살생의 죄업은 간과 눈에 병이 생기고, 술을 마신 죄업은 심장병에 병이 생기고, 음욕으로 지은 죄업은 신장과 귀에 병이 생기고, 허망한 말로 지은 죄업은 비장과 혀에 병이 생기고, 도적질을 한 죄업은 폐와 콧구멍에 병이 생기고, 오계를

말하고 있다.

병이 일어난 근원을 이미 알았다면 갖가지 방법으로 다스려야만 하는데, 그 갖가지 병을 대처하는 방법은 동일하지 않다. 가령 수행자가 노동이나 음식으로 인해 병이 났다면 이는 반드시 약으로 치료해야 하고, 좌선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병이 났다면 좌선을 통해 수습관을 잘 조화해서 치료해야 하며, 귀신과 마군의 두 병은 반드시 수행력과 대비 주력으로 치료해야 하며, 업보로 생긴 병은 내적으로 수행력을 사용하고 밖으로는 삼보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해야만 나을 수 있다.

하지만 경률론에서 밝히고 있는 병을 다스리는 방법은 한량이 없지만 그 요점만 말해 본다면 ‘지’ ‘관’이라는 두 종류의 수행방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지’ ‘관’이라는 두 방법은 병을 치료하는 가장 훌륭한 약이고 만병을 총괄하는 대다라니이다.

무엇이 지 수행으로 병을 다스리는 모습인가.

옛날 큰스님은 말하기를 “오직 병이 일어난 곳에 마음을 두고 의식을 집중하면 바로 치료가 된다”라고 하였다. 이는 모든 병이 일어난 처소를 따라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 병난 곳에 마음을 머물고 밖으로 치구하지 않기를 삼일동안 계속할 수 있다면 일체 모든 병이 낫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마음은 우리 생명의 주재자이다. 비유하면 마음은 왕과 같고 병은 도적과 같다. 이는 마치 왕이 도탄한 처소에서 모든 도적이 쫓겨나 흩어지는 것과도 같다. 만일 왕과 같은 마음이 병이 있는 곳에 편안하게 안주했다면 도적과 같은 병은 자연히 소멸하게 된다.

■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스튜디오 제작 보급

동원책원은 지상강의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현대스님 권)와 호법유사의 비파사사지 새로운 유산학의 길잡이인 유산학의 신유스튜디오> 타이틀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s32@hanmail.net

업보로 생긴 병은 수행 · 참회해야 나올수 있어 귀신병 등은 오래 경과하면 치료하기 쉽지않아

악귀는 바로 사리불에게로 가서 머리를 후려쳤다. 그랬더니 천지가 크게 진동을 하고 사방에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닥쳐 대지가 두

쪽으로 나뉘어 악귀는 즉시 지옥에 떨어졌다.

그 때에 사리불은 삼매에서 일어나 웃을 여미고 가란타쪽에 계시는 세존의 처소에 나아가 머리로 부처님 발을 향해 예배하고 한쪽

으로 물러나 앉았다.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고하였다.

“그대는 지금 아픈 곳이 없느냐.”

사리불은 답변하였다.

“저는 평소엔 병이 없었는데 지금은 두통

때문에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였다.

“가라라는 귀신이 만일 수미산을 후려쳤다

면 수미산이 두 쪽으로 나뉘었을 것이다. 요

행이 그대는 금강삼매에 들어서 이 삼매신통

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머리를 맞았어도 상처

를 입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극도로 위

험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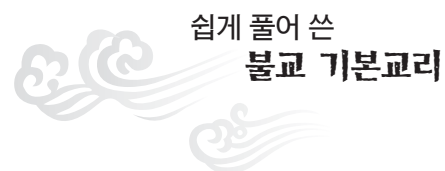
파괴한 죄업은 오장과 오근에서 병이 일어난다. 이러한 병은 업보가 소멸하면 자연히 낫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금생에 금계를 근엄하게 지녀야만이 전생의 죄업이 드러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전생의 무거운 죄업을 지었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아야만 하지만 금생에 금계를 근엄하게 지키면 인간세상에서 단지 두통 병만으로도 그 무거운 죄업이 소멸되는데, 이는 업이 뒤바뀌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다.

二明治病方法者 即深知病源起發 當作方法治之 治病之法 乃有多途 舉要言之 不出止觀二種方便 云何用止治病相 有師言 但安心止在病處 即能治病 所以者何 心是一期果報之主 譬如王有所至處 羣賊逆散

두 번째로 사대 오장병과 귀신병과 업보로 생긴 병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지에 대해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사제법문(四諦法門)

②집제(集諦)

‘집’은 무더기[集] 결집(結集) 초인(招引) 또는 조성(威)의 의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과(苦果)의 원인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세간 고통의 과보는 무엇을 따라 불러들이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집제가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는 소재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명의 어둠을 때문에 갖가지 집착과 욕망에 사로잡혀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신 구 의라는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갖가지 행위(業)를 조성합니다. 그 업이 무더기로 집합하면 하나의 업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업의 세력이 결집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 업에 대한 결과를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선업(善業)은 선과(善果)를 부르고 악업(惡業)은 악과(惡果)를 부르는 게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는데, 악과가 바로 고제로서 고과(苦果)입니다. 그러므로 현실고통의 근본원인을 추구해 본다면 최초의 일념무명의 어둠을 따라서 망상이 일어나고 그 망상을 따라서 악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바로 괴로움의 과보라고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현재의 고통스러운 과보는 과거에 이미 지은 악업의 소산물이며, 현재의 악업은 다시 미래의 고통을 생산하는 원인입니다. 이처럼 무명망상과 악업은 고통을 부르는 원인이 되는데 이를 두고 집제라고 합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집제는 고의 원인이 되고 고제는 집제의 결과가 되어 이 둘은 흑업(惑業)과 사매(三世間)의 인과율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세간생사의 인과관계가 단절 없이 상속되는 실상입니다. 여기에서 ‘혹’과 ‘업’은 집제에 포함되고 ‘고’는 당연한 고제에 설 수됩니다. 이상의 고집이제(苦集二諦)는 미혹한 세간의 생사유전인과입니다.

③멸제(滅諦)

‘멸’은 세간의 일체고뇌를 제멸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뇌를 소멸시킨다는 의미인 고멸제(苦滅諦)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해탈론(解脫論)에 해당됩니다. 앞서의 고집이제가 현재의 고과(苦果)와 그 고과가 생기는 집인(集因)의 관계를 밝힌 것이었다면 멸제는 고인고과(苦因苦果)를 제멸한 상태에서 얻어진 상주안락(常住安樂)의 열반을 밝힌 것이라 하겠습니까. 부처님의 관찰에 의거하면 고통을 일으키는 근접한 원인이 업이며, 그 업은 미혹을 의지하여 있게 됩니다. 미혹을 분유하면 그 근본원인인 무명이 있고, 다시 무명을 의지하여 일어난 망상이 있게 되고, 그 망상을 의지하여 일으킨 집착과 욕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혹의 대체적인 모습입니다. (‘멸제’는 다음호로 이어집니다) ■정리=張如舟

수행도우미

기본종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누리세요

발로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랑거나 갈라진 굳은살.
보들보들, 보송보송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목아픔
즉시 해소
(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토플

절수형,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뱃뱃함,
오십견과 스트레스 순간해소

청명고요(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이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또렷할 유지
수험생,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클름 피로 완전 해소

[호락호락센터, 외산삼매요, 보석연꽃면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관애원(손목,무릎보호대)]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인터넷주문도메인 : www.법왕정사.kr

정규 제1기 학인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기남부총무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설 경기불교대학 정규 제1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교수과목:

	14시~16시	16시~18시	18시~20시
화요일	컴퓨터 강좌 ◆기본사용법 ◆인터넛강좌	◆종무관리 ◆홈페이지제작,관리	태고종사 기본교리 법회설법
금요일	내전 ◆사미과목 ◆사집과목 ◆사교과목	의식 ◆사물다루는법 ◆상용의식 ◆범패	명리학 육임

◆모집대상:
① 한국불교태고종 및 타종단 스님
② 불심이 돈독한 재가불자

◆교육기간: 2년(정규반 1년, 연구반 1년)

◆전 형: 연접 ◆수강료: 월 10만원

◆접수기간: 2009년 2월 20일

◆접수방법: 전화하시면 입학원서,
세무사항을 보내드립니다.

※연 락 처: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262 원광사
☎ 031)353-2877 / 전송 031)353-2854

한국 불 교 태 고 종 **경 기 불 교 대 학**
설립인가제2009-1호 학장 임경순(보평) 부학장 이정석(보평)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은 한번 잘 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改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
와 있는 대개의 작명서(作名書)들이 한결같이 수리
(數理)와 오행(五行)에만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 같은 수리(數理)와 오행(五
行)이라면 두 사람은 똑 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
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필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
을 제거하고 본인의 사주(四柱)와 띠(年支)에 맞추어
짓게 한 것이다. 좋은 이름은 수리(數理)와 오행(五
行)은 물론이고, 주역팔괘(周易八卦)에 맞추어 지어
야 비로소 좋은 이름을 얻게 된다. 주역(周易)을 모르
는 사람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설을
하였다. 이 책을 만나는 순간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또한 그 사람의 이름이 길명(吉名)인지, 흉명(凶名)인
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 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大邱에서 많은 후학(後學)들에게 작명법(作名法)을
강의하고 있으며, 본서(本書)가 참다운 작명(作名)의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송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역리작명법(易理作名法) 382쪽 (정가: 30,000원)
◆著者: 孫中山 (75세) 韓國 韓國學會 會長
◆계좌번호: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주문전화: 053)324-2468 / 326-4585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 관련 전문 대출 기관

전통사찰 불사 대출
(기체승인부)

사찰 매매 잔금 대출
기타 대출

재무부인가 제 9-205호

☐ 문의전화 : 053)428-1133
☐ 전문상담 : 徐一永 전무
C.P 011-527-1037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
대구시 중구 남산동 665번지 삼정그린코아상가 1층 101호